

“미래모빌리티 위한 GSO 신설… 경영 불확실성에 대비”

(글로벌 전략 오피스)

현대차그룹, 대표이사 등 임원인사
동커볼케 CCO·부사장, 사장 승진
AAM 등 고객경험 디자인 주도

글로벌 대표이사에 이규복 승진
재무·해외판매 등 전략기획 전문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원자재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외부 악재에 대응하고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그룹은 30일 루크 동커볼케 최고창조책임자(CCO·부사장)를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2022년 대표이사·사장단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그룹 전환에 속도를 내고자 컨트롤타워를 신설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한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미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성과를 기반으로 핵심 인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동커볼케 사장은 현대차와 기아, 제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사장



이규복 현대글로벌 대표이사

네시스의 브랜드 정체성과 지향점을 구축하고 그룹의 다양한 창조적 프로젝트 실행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그룹의 주요 신사업 분야인 미래항공 모빌리티(AAM) 등 미래 이동수단과 연계한 고객 경험 디자인을 주도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의 브랜드 별 정체성과 지향점을 명확히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최근 현대차그룹의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을 이끌었다. 동커볼케 사장은 향후에도 그룹 CC

O 역할을 유지함으로써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브랜드 정체성 강화 등을 통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물류 계열사 현대글로벌 대표이사에는 현대차 프로세스혁신사업부의 이규복 전무가 부사장 승진과 함께 내정됐다. 이 부사장은 유럽지역 판매법인장, 미주지역 생산법인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경험한 재무·해외판매 기반 전략기획 전문가다.

그룹 전반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글로벌 역량이 탁월해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스마트 물류기업으로서 현대글로벌의 도약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프로세스 전반의 혁신을 담당해 왔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그룹 전환에 속도를 내고자 컨트롤타워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컨트롤타워 조직인 ‘글로벌 전략 오피스(GSO)’를 신설하기로 했다. GSO 부문별 인사와 세부 역할은 다음 달 결정된다.

GSO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빌리티 서비스 관점에서 미래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대내외 협업과 사업화 검증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어 미래 전략이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실행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미래 신사업 전략 실행 가속화를 통해 현대글로벌의 글로벌 스마트 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사에서 공영운 전략기획담당(사장), 지영조 이노베이션담당(사

장), 김정훈 현대글로벌 대표이사(사장)는 일선에서 물러나 고문 역할을 맡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선제적인 새해 경영 구상과 안정적 경영 환경을 준비하기 위한 대표이사·사장단 인사”라며 “이어 다음 달 중에 있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미래 준비를 위한 성과 중심의 인적 쇄신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중대재해, 처벌 중심→자율예방 체계 전환

고용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노사 스스로 현장내 위험성평가
사전에 발생요인 제거가 ‘골자’
5년내 사망자 400명대 감축 목표

앞으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고 발생 전 노사의 자율적 예방 조치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책이 바뀐다.

정부는 노사 스스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정기감독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사법 조치하는 조항을 새로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현행 800여명에서 500명대까지 줄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관련기사 3면>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추는 내용의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30일 발표했다.

◆노사 자율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 ‘위험성평가’ 의무화

노사의 자율적 예방 조치란 노사 스스로 현장 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중대재해 발생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후 처벌·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독이 아닌 노사가 안전보건에 대한 자율 역량을 갖춰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이번 로드맵의 골자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수를 지난해 기준 828명에서 오는 2026년까지 400명대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3년 도입됐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자기규율 방식과 맞지 않는 감독과 법령은 그대로 유지돼 다수의 기업이 따르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

고용부는 당장 내년부터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은 내년, 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오는 2024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사고 위험요인, 실제 사고 발생 사례 등을 토대로 노사가 사고 위험이 큰 작업과 공정을 선제해 평가, 관리를 하게 된다. 노사 스스로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 위험이 큰 작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위험 수준을 평가해 안전 관리에 나서는 방식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건의서를 공개하고,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위험 요인을 발굴·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평가 기법을 알려줄 계획이다.

다만, 고용부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한 기업에는 시정명령이나 벌칙을 내릴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관련 조항도 신설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중국 베이징에서 한 남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건강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AP·뉴시스

제조·비제조업 위축… 얼어붙은 中 경제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코로나 감염자 급증에 봉쇄 영향 커

중국 경제가 얼어붙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달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불문하고 경기가 일제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도시들이 광범위하게 봉쇄된 영향이 컸다.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이다. 전월 대비 1.2포인트(p) 낮아진 것은 물론 시장예상치 49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하이가 전면 봉쇄됐던 4월(47.4)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PMI는 구매, 생산, 유통 관리자 등이 예상하는 경기 예측 지수다. 50을 넘기면 경기 확장, 미만이면 위축을 뜻한다.

중국의 월별 제조업 PMI가 50을 밑돈 것은 두달째다. 하반기 들어 지난 9월 50.1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제조업 허브인 광저우가 봉쇄된 10월 49.2로 꺾였으며, 봉쇄가 대도시로 번지면서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생산지수가 47.8로 전월 대비 1.8p

하락했으며, 신규 수주와 원자재 재고, 고용, 배송기간 등 주요 항목들이 모두 임계점에 못 미쳤다.

국가통계국 자오칭허 수석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고 대외 상황도 복잡해지면서 경기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비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2p 하락한 46.7로 집계됐다. 시장예상치 49를 크게 하회했다. 제조업 PMI와 마찬가지로 지난 4월(41.9) 이후 최저치다.

서비스업 활동지수가 45.1로 악화됐으며, 봉쇄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운송과 숙박, 식당, 문화체육 등의 지수는 38에도 못 미쳤다. 신규 수주와 고용 역시 각각 42.3, 45.5에 그쳤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세나웨 중국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비스 활동에 대한 타격이 컸다”며 “노동자들이 공장에 격리돼 생산활동을 하면서 제조업의 상황이 나아보이지만 실제 봉쇄에 따른 충격이 어느 정도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하방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여성 사장·차세대 임원 등 기대감

>> 1면 ‘JY, 뉴삼성 인사 초읽기’서 계속

여성 임원 승진 규모도 주요 관심사다. LG그룹이 최근 인사를 통해 여성 CEO를 2명이나 배출하는 등 재계가 여성을 중요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여성 사장을 아직 가져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마케팅센터장인 이영희 부사장을 비롯한 여성 부사장들이 승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 회장이 현장을 찾으면 꼭 워킹맘과 간담회를 갖는 등 여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어왔던 만큼, 회장 취임 후 첫 정기 인사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반영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세대 교체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1980년대에 태어난 임원 비중이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심사다. 이미 13명이 상무로 재직중인 가운데, 최연소는 1985년생 삼성리서치 김태수 상무다. 내년부터 MR 헤드셋과 로봇 등 새로운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전망, 차세대 임원도 미래 먹거리 전문성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용 기자 juk@